



정재서 교수

푸른숲/A5변형/344면/15,000원

“도교는 중국의 무의식이자 상상력의 총체다”

《도교와 문학 그리고 상상력》 펴낸 정재서 교수

일찍이 노신은 도교를 가리켜 중국문화의 근저며 중국의 뿌리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만큼 중국문화를 이해하는데 도교는 필수적이라는 말이다. 정재서 교수의 《도교와 문학 그리고 상상력》은 문학을 ‘나침반’ 삼아 도교의 세계를 분석하고 있는 역저다. 정교수는 이 책에서 도교의 상상력과 환상성이 포스트모던한 세계를 해석하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일찍이 중국의 대문호 노신은 도교를 ‘중국문화의 근저’이자 ‘중국의 뿌리’라고 말했다. 이 말을 거칠게 해석하면, 도교를 알면 중국이 보인다는 뜻이 될 듯하다. 하지만 우리 동양학계의 도교연구는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유학에 지나치게 경도된 탓이다. 그런 점에서 도교와 문학의 ‘혈연성’을 밝힌 정재서 교수(48, 이화여대 중문과)의 《도교와 문학 그리고 상상력》(푸른숲)은 그 출간 의의가 남다른 저서다.

도교와 문학의 ‘친족관계’ 밝혀

정교수는 도교라는 거대하고 복잡한 사상을 헤쳐가기 위해 문학을 ‘나침반’으로 삼았다. 도교에서 말하는 불로장생은 그 자체가 허구적 속성을 다분히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 허구성은 문학의 본질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도교에 나타난 설화성은 문학의 이야기성과도 잘 맞아 떨어진다. 도교의 여러 경전을 가득 메우고 있는 수많은 신선과 불사약, 그리고 도술에 관한 이야기는 도교가 지닌 풍부한 신화적 특징을 보여준다. 정교수는 도교를 중국의 무의식이자 상상력의 총체라고 정의한다.

“도교는 그 이론이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교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접근보다 감성적이며 자유로운 태도가 요구됩니다.”

중국의 토착 신앙에서 발생한 도교는 그 뿌리

가 《산해경(山海經)》과 같은 신화에 닿아 있어 문학과 ‘친족관계’를 맺고 있다. 이 책은 4부로 나뉘는데, 1부와 2부는 도교의 기본 텍스트인 《태평경(太平經)》과 《포박자(抱朴子)》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태평경》이 문학을 기(氣)의 소산으로 보는 동아시아 특유의 문학관에 적극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은 흥미롭다.

하지만 이 책의 핵심은 도교와 문학의 관련성을 다룬 3부 ‘도교와 서사’다. 정교수는 “도교의 본질은 논리성에 있지 않고 이야기성에 있다”고 단언한다. 도교의 교의는 인간에 내재한 설화적 인식체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침투하며, 인간은 무수한 신선과 도술 이야기를 통해 도교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문학과 도교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도교는 중국 소설의 발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민중은 현실 제도의 불합리성을 고발하고 지배 이데올로기를 전복하고자 도교의 환상적인 속성을 적절히 이용했습니다. 그 환상성을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문학이었죠.”

그러나 동아시아 문학과 사유의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도교는 오랫동안 배척당해 왔다. 정교수는 그 이유로 동아시아를 지배해온 강력한 유교 이데올로기를 든다. 합리적이고 정태적인 유교적 세계관을 지닌 지배계층은 자유롭고 역동적인 세계관을 가진 도교를 배척해야만 했다. 도교의 환상성이 때로는 강렬한 현실변혁 운

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도교는 변방의 종교이자 피지배계층의 종교입니다. 민중은 도교적인 상상력을 통해 울분을 달랬습니다. 황건적의 난이나 최근의 파룬궁 사건은 도교가 현실 개혁 의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도교는 동아시아의 기층문화다”

도교가 동아시아 문화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살핀 4부 ‘도교의 의의 그리고 그 위상’도 비록 짧지만 주목할 만하다. 정교수는 도교를 동아시아의 ‘기층문화’로 규정하면서 지배 이념에 대해 보완적인 위치에 서서 비판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21세기를 조망하는데 도교가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교에 나타난 여성주의적 성향, 자연합일사상, 신체에 대한 탐구는 각각 현대의 페미니즘과 생태주의, 몸 담론 분야에서 그 현대적 적용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죠.”

이 책의 부제는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비추는 아나모르포즈’. 아나모르포즈란 현실을 변형하고 왜곡하는 미술적인 수법을 말한다. 정교수가 부제를 이렇게 정한 이유는 탈근대 이후 다원화된 세계를 해석하고 파악하는데 도교의 상상력과 환상성이 더 없이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최갑수 기자